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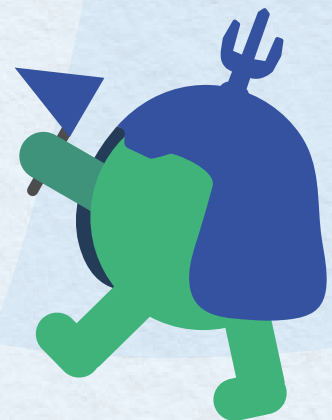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노량해전

관음포에 떨어진 큰 별
이순신을 기억하며 걷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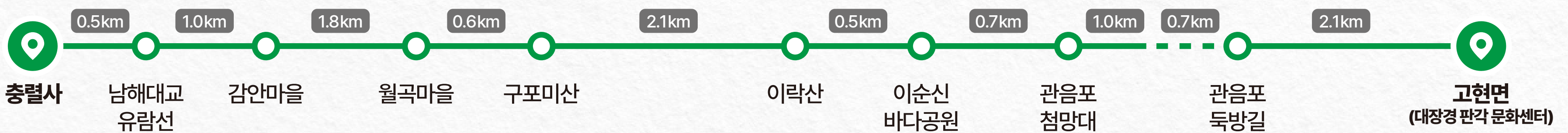


남해

1598년 11월 19일



주요 경유지점



퇴각하는 왜군을 끝까지 섬멸하기 위해 치른 해전으로 이순신장군이 끝내 전사한 해전

이순신 장군의 해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처절했던 마지막 전투로, 조명연합군과 일본이 격돌한 역사적인 해전입니다.

조명연합군은 왜군을 포위해 격퇴하고자 하였고, 퇴로가 막힌 왜군 함대는 탈출을 시도하며 근접전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맞섭니다. 전투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진두지휘하다 전사하며, “전쟁이 한층 급하니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곳은 장군이 최후를 맞은 자리이자, 그의 유해가 지나간 길로서 충절과 희생의 뜻이 서린 승전의 길이 됩니다.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사천해전

거북선이 최초 출정한
위풍당당 승리의 길



사천 1592년 5월 29일



주요 경유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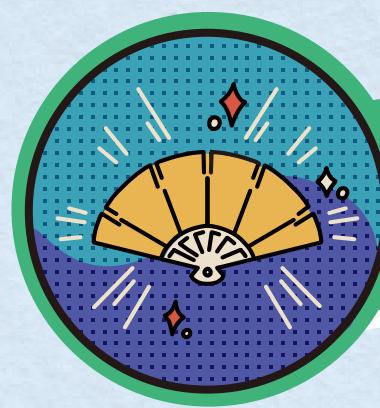


거북선을 최초로 출동시켜 승리로 이끈 해전

사천 앞바다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처음으로 출정하여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해전입니다.

장군은 원군과 연합함대를 구성해 왜군의 적선을 모두 격파하며 대승을 이끌어냅니다.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전술로 활용해 해전의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었으며, 거북선과 판옥선이 정박했던 대방진굴항은 전투 전후 병력과 선박의 숨결이 머물던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사천해전은 조선 수군의 전술과 전함, 그리고 장군의 지략이 빛난 승전으로, 이후 이어질 연전연승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였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당포해전

조선수군의 출정 전초기지,
승리를 기대하며 걷는 길



통영

1592년 6월 2일

남파랑길 28코스

착량묘,
통영해저터널

시·종점

남파랑길 29코스

세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산양읍

당포성지



당포항

당포해전

통영수산
과학관

시·종점

달아공원
(달아전망대)

시종점
이순신승전길
남파랑길 코스

코스 난이도 14.9km | 약 4시간 소요

착량묘-당포성지

당포성지-달아공원



주요 경유지점



일본수군의 적장의 사망으로 일본수군의 사기를 크게 꺾은 해전

당포는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 중 하나인 당포해전의 승전지이자, 한산대첩 등 수많은 전투의 출정지로 활용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세운 당포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일시적으로 점령되었으나, 조선 수군이 이를 다시 탈환하며 군사적 주도권을 회복합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장 가메이 코레노리에게 하사한 금부채를 전리품으로 획득하며 상징적 승리를 거둡니다. 미륵도 앞바다에 자리한 당포는 수군의 기지이자 작전의 중심지로, 장군의 지략과 승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당항포해전

명장의 전술과 월이의 기지를 기억하며 걷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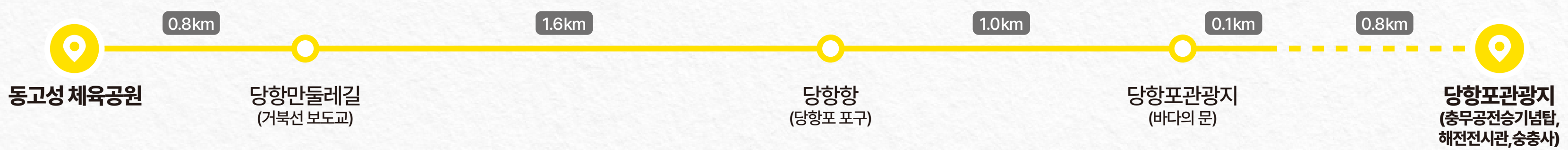


고성

1592년 6월 5일 / 1594년 3월 4일~3월 5일



주요 경유지점



당항포의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매복, 유인, 포위, 추격 등 다양한 전술로 큰 승리를 거둔 해전

당항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술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해전으로, 해전 1년 전 왜군의 움직임에 파악하기 위해 기생 월이가 기지를 발휘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좁은 당항포 해협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합함대는 포위 전술을 활용해 왜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고, 이순신 장군은 탐색선과 매복선 등을 활용한 정교한 전략으로 적을 기습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해전은 연합함대의 협력과 장군의 전술적 역량이 빛난 중요한 승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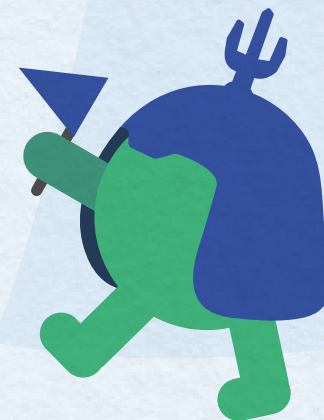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옥포해전

조선 수군 첫 승리의
기쁨과 환희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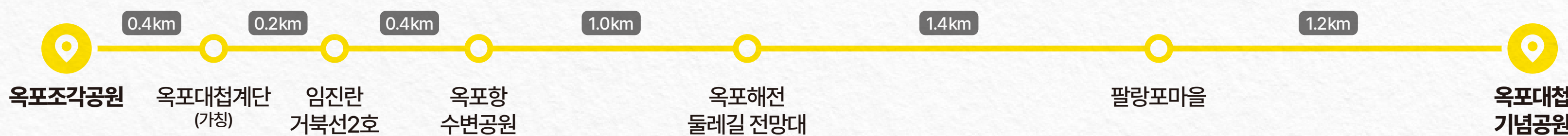


거제

1592년 5월 7일



주요 경유지점



이순신장군과 조선 수군의 첫 승전지

임진왜란의 첫 출전지이자 첫 승전지인 옥포해전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임진장초에는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 /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게 있게 행동하라)’는 명언이 기록되어 있으며, 난중일기에는 ‘낙부지치(樂赴之志/기꺼이 나아갈 뜻을 지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굳은 의지가 담긴 어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해전은 세계 해전사에 처음 등장한 집중타 전법으로 승리를 거둔 전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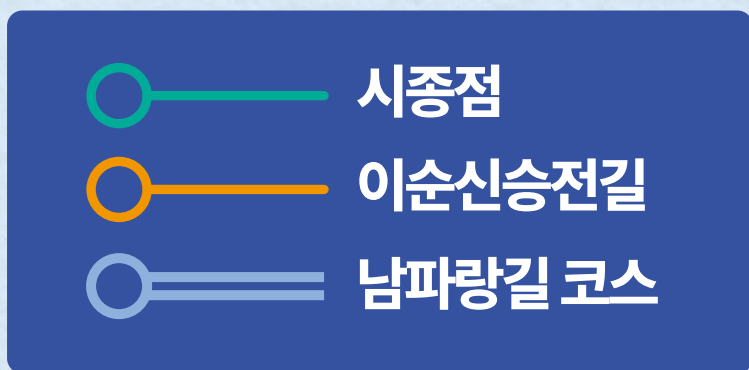
울포해전

조선 수군의 기개를
경험하며 걷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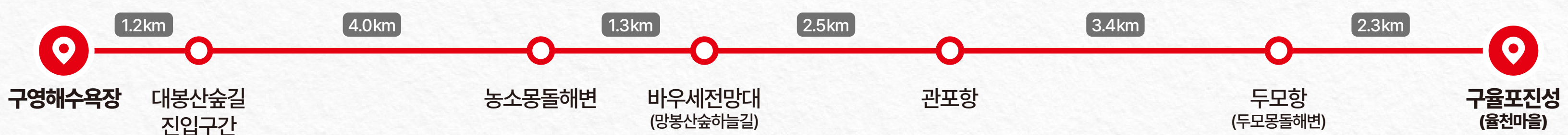


거제

1592년 6월 7일



주요 경유지점



역풍을 뚫고, 일본수군을 끈질기게 추격하여 승리한 해전

울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2차 출정 중 마지막 대규모 해전으로, 역풍이 거센 상황에서도 판옥선을 활용해 빠르게 적을 추격하여 왜적이 물로 도망가기 전에 완전하게 소탕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전략적 요충지인 영등포 인근에서 시작되었으며, 영등포는 웅포와 안골포를 통해 서쪽으로 진격해 오는 왜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옥포해전을 비롯한 여러 주요 해전들도 이 지역을 기반으로 펼쳐졌으며, 울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휘력과 기민한 전술 운용이 빛난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안골포해전

포구마을의 정취와 이순신장군의
기지를 배우며 걷는 길



창원

1592년 7월 10일

안골포해전

안골포 굴강

시·종점

안골포해전승전비
(안청공원)

시·종점

안골왜성

남파랑길 6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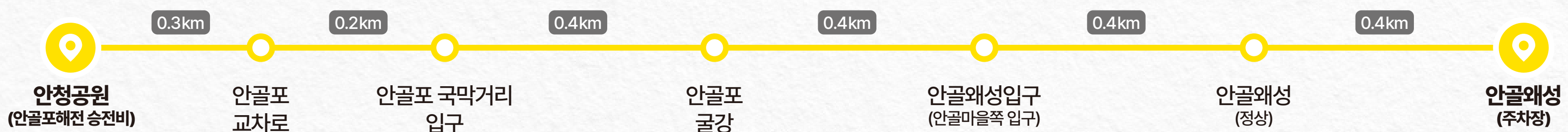
- 시종점
- 이순신승전길
- 남파랑길 코스

코스 난이도

2.7km | 약 3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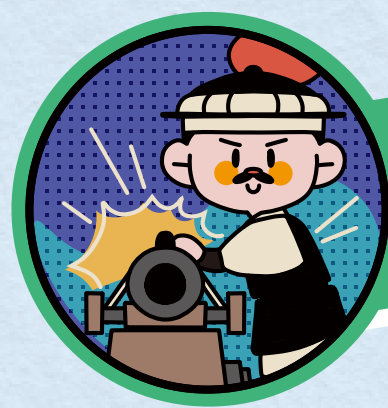
주요 경유지점



조류 시간차를 이용해 일본 수군의 전진기지 부산을 막아낸 해전

임진왜란 3차 출정의 마지막 승전지인 안골포해전은 왜적의 주요 거점인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안골왜성을 상대로 펼쳐진 끈질긴 공략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조류의 시간차를 이용한 전략적 전술과 치밀한 지휘로 일본 수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안골포해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과 국민을 향한 깊은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승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선 수군의 연이은 승리 가운데 하나로, 왜적의 부산 전진기지를 봉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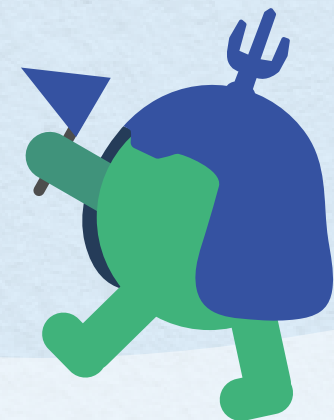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적진포해전

조선수군 무패신화의 동력인
'자신감'을 회복하며 걷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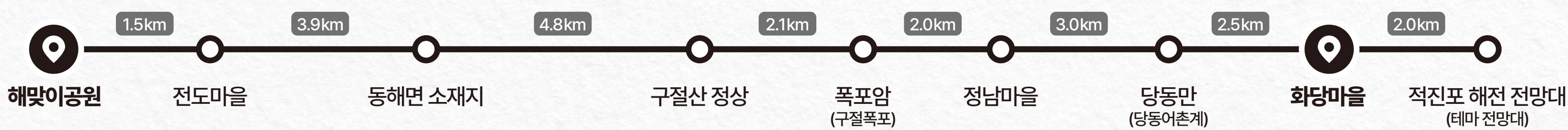


고성

1592년 5월 8일



주요 경유지점



연전연승으로 조선수군이 불패신화의 자신감을 갖게 된 해전

적진포해전은 이순신 장군과 원균이 이끄는 연합함대가 승리를 거두며 무패 신화에 대한 자신감을 굳힌 중요한 해전입니다.

1952년 5월 10일 기록된 『옥포파왜병장』에는 조선 수군 28척이 일본 전선 13척을 완전히 격파한 승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합포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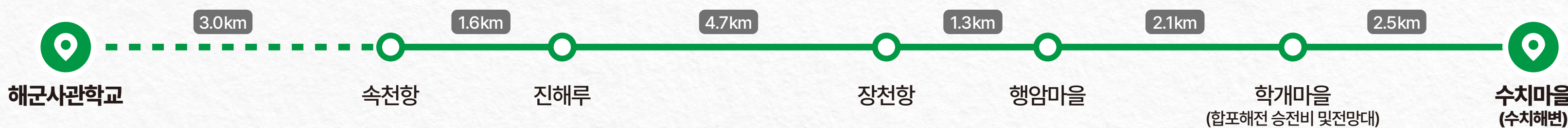
위대한 해상 영웅들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는 길



창원(진해) 1592년 5월 7일



주요 경유지점



이순신 장군의 무패 승전이 문이 아닌 전술과 조선 수군의 기동력 덕임을 확인한 해전

합포해전은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 장군이 전선 운용 능력과 조선 수군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왜군을 격파한 전투로, 이후 군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 해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전투의 승전지는 오늘날 국내 최초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지고, 제례의 전통이 이어져 온 진해 지역으로, 현재의 군항제 원형이 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대죽도에 설치된 거북선 야간 경관 조명은 당시의 전장을 떠올리게 하며, 인근 해군사관학교의 철책길과 박물관은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역사와 해군의 전통을 되새기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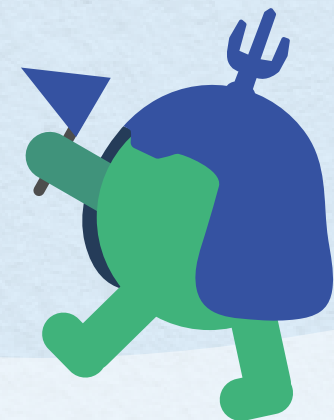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합포해전

달 그림자를 즐기며
밤에 더 걷기 좋은 도심 승전길



창원(마산) 1592년 5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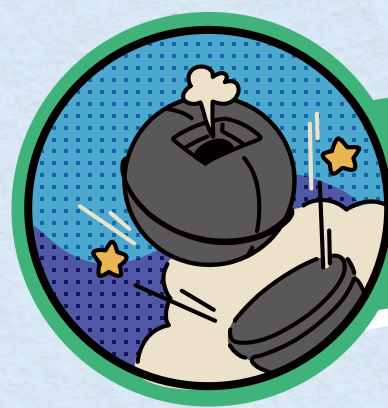
주요 경유지점



이순신 장군의 무패 승전이 문이 아닌 전술과 조선 수군의 기동력 덕임을 확인한 해전

합포해전은 영등포에서 출발해 합포만까지 일몰 전에 전투를 마친 속전속결의 전투로, 이순신 장군의 빠른 판단과 조선 수군의 기동력이 돋보인 해전입니다. 조선 수군이 머물렀던 우리나라 최초 해상유원지인 돌섬 그리고 신라 시대 최치원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월영대 등 역사·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웅포해전

웅천왜성과 이순신장군의
애민정신을 체험하는 길



창원 1593년 2월 10일~ 3월 6일



주요 경유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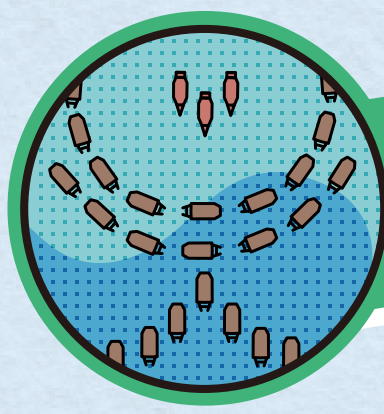


난공불락이었던 웅천왜성을 끈질기게 공격한 해전

웅포해전은 왜적의 주요 거점인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왜성의 근거지를 끈질기게 공략하여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이억기, 원균이 이끄는 연합함대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신처에 있던 왜적을 유인해 해상에서 격파하는 전략을 펼쳤고, 이는 조선 수군의 치밀한 전술과 연합 작전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해전은 왜적의 주요 해상 근거지를 연이어 타격하며 그 세력을 약화시킨 중요한 승전으로 기록됩니다.

위대한 영웅이 지켜낸, 위대한 자연에서 만나는, 위대한 경험



이순신승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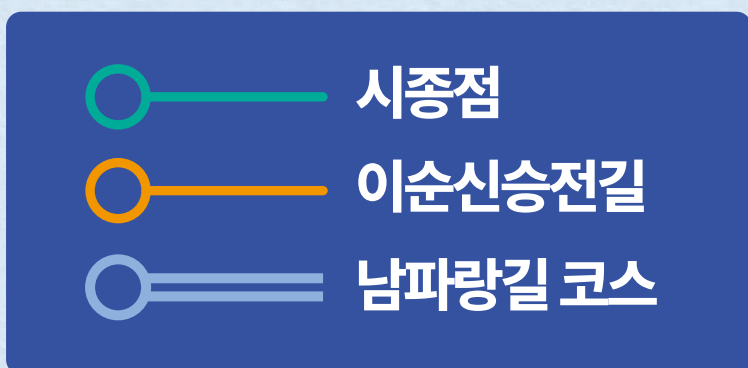
한산도해전

이순신 장군의
삶의 현장을 따라 걷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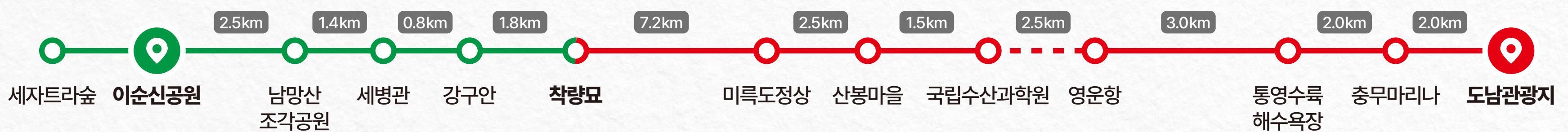


통영

1592년 7월 8일



주요 경유지점(내륙/미륵도 구간)



주요 경유지점(한산도 구간)



일본의 수륙병진작전을 좌초시키고, 바다의 제해권을 조선수군이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된 해전

한산도해전은 조선 수군이 바다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한 결정적인 승전으로, 연전연승의 전기를 마련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왜선을 처음 발견한 인물은 목동 김천손으로 전해지며, 한산도해전에서 패한 왜장 외키자카 가문의 몰락 또한 이 해전의 역사적 의미를 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3년 8개월간 삼도수군통제영을 두고 지휘한 한산도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제승당 앞 해감도에서는 장군이 잠시 갑옷을 벗고 휴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등, 이곳은 군사적 의미와 함께 인간 이순신의 모습까지 품은 상징적인 공간입니다.